



환절기 돼지 면역력 '돈사 온습도 유지'로 올려줘야

- 돈사 내 환기량 조절로 온습도 변화 최소화
- 허약한 어미, 새끼 돼지 별도 관리... 충분한 사료 공급·영양소 보충

올여름 유독 심한 폭염을 겪은 돼지의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시기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매우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펴야 한다.

평상시 분만 돈사 적정온도는 18~21도(℃)다. 하지만, 갓 태어난 새끼 돼지는 환경온도를 30~35도로 유지해 준다. 아울러 보온등, 보온 상자 등 난방기구를 설치해 별도의 보온 구역을 설정해 두길 권장한다.

또한, 돈사 내부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 세균이 증식하기 쉽다. 반면, 습도가 낮으면 돈사 내부에 먼지를 발생시켜 돼지 호흡기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돈사 내부 습도는 환기팬으로 조절할 수 있다. 급격한 환기량 증가나 온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환기팬이 서서히 작동하도록 설정한다. 습도는 물분사와 환기량 조절로 60~7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환절기 큰 일교차로 돼지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기도 한다. 육성·비육기

돼지 중 허약한 개체는 별도 돈방을 마련해 사료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허약한 어미돼지에게는 비타민 및 광물질 제제 등을 보충 급여해 체형을 관리해야 번식 성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규호 양돈과장은 “여름철 폭염에 이은 환절기 큰 일교차로 돼지의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을 때다.”라며 “돈사 내부 온습도 관리, 환기, 영양공급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돼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돼지 사육 구간별 적정 온습도 범위 및 환기량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책임자	과 장	조규호 (041-580-3440)
		담당자	연구사	정용대 (041-580-3448)



<표 1> 돼지 사육구간별 적정 온습도 범위

구분	온도(℃)	습도(%)
출생 직후	30~35	60~70
1주일령	25~30	60~70
1주일~이유 전	20~25	60~80
이유 시	25~28	60~80
이유~45kg	18~22	50~80
45kg~성돈	15~20	40~60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돼지사육 100문 100답집>

<표 2> 돼지 사육구간별 및 계절별 권장 환기량

구분	체중 (kg)	겨울 (CFM/두)	봄/가을 (CFM/두)	여름 (CFM/두)
모돈+포유자돈	181	20	80	500
초기자돈	5~14	2	10	25
후기자돈	14~34	3	15	35
육성돈	34~68	7	24	75
비육돈	68~100	10	35	120
임신돈	148	12	40	150
웅돈	181	14	50	300

*CFM: Cubic Feet per Minute)

<Midwest plan service: Mechanical ventilating systems for livestock housing>